

Jean-Michel Lacroix

1944년생으로 1978년 프랑스 파리 3대학에서 국가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 대학의 교수이자 국제 캐나다연구 협회(A. I. E. C.) 회장으로서 재임중. 캐나다 연구로 “Prix internationale Northern Telecom des Cinq Continents”상을 수상한 바 있고, 1978년부터 P.Spriet와 함께 “Etudes Canadiennes”란 잡지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그의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Incidences de la politique des communautés culturelles sur Montréal, Le Canada, pays des frontières ou pays sans frontières?, Le pluri-ethnisme canadien: au-delà de la fusion et de la confusion* 등이 있다.

캐나다의 다민족주의

- 융합과 혼돈을 넘어

장-미셸 라크루와

머리말

캐나다의 다민족주의라는 미묘한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날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가지 역사적 사실을 개괄하고자 한다.

계속된 식민 植民과 그 결과로 형성된 캐나다의 인구구성은 현재 캐나다의 사회조직의 토대가 되고 있다. 원주민들, 또는 Amérindien들과 Inuit들의 '정착민 peuple fondateur' 외에도, 16세기, 특히 17세기부터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해서 양자간의 갈등 때문에 끊임없이 입헌 논쟁을 주도했던 두 '정착민'들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에 속해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계 주민들로부터 이중으로 식민 통치를 받은 캐나다는 이중성을 뚜렷한 특징으로 지니게 되었다. 프랑스가 누벨 프랑스 Nouvelle - France의 포기 및 양도를 인정하는 파리 조약에 서명한 1763년 당시, 그 영토 안에는 단지 6만 5천 명의 인구만이 거주할 뿐이었다. 미국전쟁(1783-1785) 당시의 영국당원들과 아일랜드인, 프랑스인들의 유입과 캐나다의 개방정책이 18세기 말, 19세기 전반의 캐나다 사회를 휩쓸었고, 그 결과 1867년 캐나다는 이미 사실상의 이민국가였으며, 1880년부터 시작된 근대 이민의 물결은 이러한 특징을 더욱 강화시켰다.

인구증가의 두가지 요인으로는 자연 증가와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출산율 저하의 위기감 속에서 캐나다는 이민을 자국민구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세기동안 캐나다의 인구구성비는 엄청나게 변모했는데, 1867년까지만 해도 캐나다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했던 프랑스인들과 영국인들이 1991년에는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8%에 속했던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공동체 집단들이 30%를 웃돌면서 캐나다 인구에서 제 3의 위치를 차지하게된 것이다.

캐나다의 문화적 다원성은 하나의 사회기반이며, 북미의 이 광활한 지역은 언제나 그 다양성에 의해 특징지어져 왔다. 연방형성 시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캐나다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증가는 캐나다의 사회적 변모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캐나다적 모자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것을 캐나다의 특수성 중의 하나로 꼽게 할 정도이다. 캐나다의 민족적 문화적 다원성이 야기시키는 캐나다 현실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최근 북미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국제화 되어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를 USSR의 '분열', 동유럽 국가들의 최근의 정치 변화, 1993년을 향해 점진적으로 통합해 가고 있는 유럽공동체의 형성,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내거는 이민정책 등의 상황 속에서 민족감정이 부활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의 관심은 작금의 격렬한 입헌 논쟁이나 사회정치적 맥락은 논외로 하고, 현재의 캐나다와 같이 다문화적, 더욱이 다인종적인 사회의 목표를 검토하는데 집중될 것이다. 또한 프랑스 사회와 미국 사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캐나다적 모자이크의 독창성인가를 알아보고, 21세기초 캐나다가 당면하고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하나의 캐나다의 두 개의 형식인가, 두 개의 캐나다인가?)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러한 캐나다의 모자이크적 구성이 또 다른 유형의 사회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캐나다의 문화적 다원성의 관건

이 첫 부분에서는 그들의 문화적 다원성의 목표를 드러내기에 앞서, 몇몇 기본적 요소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몇가지를 상기시키고

자 한다.

-- 몇가지 역사적 사실 :

지속적인 이민 유입의 역사는 캐나다가 이민국가임을 보여준다. 이 명백한 현실로 인해 캐나다는 새로운 이주민들을 통합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유럽사회와는 확연히 구별되며, 오히려 미국과 유사성을 띤다.

캐나다라는 국가의 시발은 상대적 동질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민족적 근원과 문화적 영역의 다양성, 정치문화의 차이, 계속 이어지는 세대들, 서로 다른 사회정치적 맥락, 문화적 언어적 이중성 등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내에는 북서 유럽 출신의 이주민들에게 체계적으로 부여된 특권에 기인한 어떤 동질성이 존재한다. 우리는 수십년에 걸쳐 이주민들의 원국적과 그에 따른 문화가 점점 더 다양해져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제 3의 집단의 비중을 높이게 되지만 이와 동시에 그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모자이크의 구성 요소들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 개념의 모호성 :

민족 *Ethnique*이라는 개념 또는 민족성 *Ethnicité*이라는 개념을 규정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포괄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족성이라는 개념에 토착인들과 프랑스인, 영국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의미론적 논쟁을 넘어서 기본적인 난점은 '타자 *autre*'를 규정짓는 것과 '우리 *nous*'와는 다른 것을 식별하는 것이다. 소수민족집단이나 문화공동체적 민족집단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 그들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위의 차이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민족적 모자이크가 수직적 모자이크인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시거나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이민에 대한 특혜에도 차이가 있다.

-- 문화적 다원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여기에는 3가지 의미, 즉 다양한 민족의 인구통계학적, 사회문화적 현실, 1971년 트뤼도 P.E. Trudeau에 의해 창안된 연방 정치, 이 정치의 기반이 되는 문화적

다원성의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다원성의 장점과 단점을 열거하는 것은 길고도 지루한 일이 될 것이며, 오히려 문화적 다원성의 원리나 이 철학의 이데올로기적, 논리적 결론들 그리고 이 철학이 캐나다 사회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흥미로울 것이다.

문화적 다원성은 그것이 사회경제적, 정치적 권력 장악을 위한 갈등과 투쟁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결국 무엇보다도 통일성에 대한 집착과 국가의 정체성의 규정에 밀접하게 연관된다. 과연 다양성으로부터 출발해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회가 다원문화적이 된 듯하다. 이러한 다양성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2.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통합과 다민족성

캐나다적 모자이크의 독창성을 살펴보기 전에, 다음 세 나라들의 인구의 집중과 분산을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논의되는 각 나라는 선진국이므로, 반드시 통시적 관점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민족연구 방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용사회 *société d'accueil*들이 민족의 뿌리찾기 혹은 차별성에 대한 승배와 상호 동화 사이에서 동요하거나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이민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원주민 집단들을 통합시키고 그 잇점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프랑스가 수세기 동안 굉장히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형성된 사회라는 것을 자주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1980년대초 이후로 이민 문제는 프랑스 정치 논쟁에서 첫번째로 다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의 인종차별주의 혹은 자민족 중심주의 自民族 中心主義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프랑스 역사의 본질적인 토대를 망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단일하고 불변적인 또는 보편적인 프랑스의 이미지는 신화일 뿐이다. 프랑스는 언제나 매우 다양한 집단들이 뒤섞여 정착했던 영토였으며, 그

런만큼 현재 프랑스의 위기감은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한다고 보다는, 통합의 프랑스적 모델이 붕괴의 위협을 받고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즉, 앙시앵 레짐 Ancien Régime, 특히 혁명과 제 3 공화국을 거치면서 체제를 갖추고, 각 집단의 차별성들을 융합시키고 자치주의들을 흡수할 수 있었던 민족공화국체제 Etat-nation républicain가 이제는 다민족체제로 넘어가야 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교도인들의 이민도 어쨌든 프랑스의 이중의 건국 신화— 전통적인 서구 유럽의 기독교 국가이며 개인주의적 인간권리를 중시하는 공화국이라는 것—와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프랑스인들의 혈통을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다섯 명 중 한 명은 외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지만, 프랑스에서 현재 4만 명을 웃도는 외국인들의 존재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여 프랑스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학적인 의문을 야기시키고 있다. 1980년대의 외국인 인구의 비율은 훨씬 가시화되긴 했지만 1930년과 동일하다. 그러나 은신처이자 정치적 망명지이며 경제적 항구로서 프랑스는 수백만명의 이주민들을 통합해야 할 현실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또 한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즉 경제정세에 따라 유동적이고 임시적이었던 이주민들의 존재가 약 15년전부터 점차 구조적이고 확정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1973~ 74년의 제 1차 석유파동으로 유발된 경제위기의 시기가 잠시의 휴지기였다. 이 점에서는 프랑스도 유럽 상황에서 예외적일 수 없다. 제 2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1960년대의 가격폭등과 인구감소의 불안으로 인해 서유럽의 국가들은 대규모 노동력 이민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이민천국이었던 서유럽 국가들은 1973~ 74년 전체적인 합의 하에 공식적으로 이민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73년 10월 RFA, 1974년 7월 프랑스, 1975년 노르웨이). 경제공황과 실업증가는 그들로 하여금 국경을 폐쇄하게 하였고, 1974년 이후로도 정치적 해결책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자리아동을 한 사람들은 주로 유럽인들이었다. 국가들 간의 분쟁의 희생자이거나 실업자인 그들은 국경을 넘어 북유럽이나 미국으로 떠났다. 1960년대 이후, 프랑스의 경우 예전의 식민지였던 알제리같은 나라들에게 노동력 제공을 요청하면서 이민의 형세는 변

하게 된다. 그후로 어떤 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이민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프랑스에는 마그렙인들이, 독일과 네덜란드에는 터키인들이, 영국에는 인도인과 파키스탄인들이 들어왔다. 예전에는 이주민들의 나라였던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도 이러한 현상의 영향을 받아 이제는 점차 이민의 대상국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흔히 신세계에 대립되었던 구대륙도 이제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들어 혼재해있는 거대한 영토가 되었으며, 이제까지 유럽과 북미가 보여주었던 상투적인 대립 양상도 최근 몇년간 공통적으로 당면한 인구 집중 현상으로 확실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미국을 대비시키려는 경향도 매우 강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용광로와 모자이크라는 대비가 부정확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캐나다 사회의 독창성을 끄집어 내려다 보면 결국 상투적이고 과장된 결론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캐나다 사회를 하나의 미국적 이상사회로 소개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람들은 무시할 것이다. 물론 두 나라의 역사는 비교할 만하지 못하며, 여러가지 면에서 캐나다는 온갖 종류의 악으로부터 보호되어 왔다(이는 특히 평화주의적 정책과 그에 따른 절도 있고 중도적인 입장 견지 그리고 거의 전무한 테러리즘과 폭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매우 매력적이라 할 지라도 여전히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관점이 캐나다적 체계의 독창성을 이루는 요소를 파기시키는 것은 아니다.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은 동화주의와 차별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해 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용광로는 위기를 맞고 있다. 비록 50년 전 시카고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창안된 민족교류의 흐름이 대단히 놀랍게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을 다민족주의 pluri-ethnisme의 고유한 모델로 묘사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 가지 요소가 미국적 복합체를 이루는 듯하다. 먼저 성공적이면서도 다소 분쟁적인 여러 민족집단의 공존을 주목해 보자. 이 공동체들은 미국 사회 내에서 파괴되지도 해체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할 줄 알았고 또 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미국사회 내에 완전히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두번째 요소는 흑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지위는 1960년대의 시민권 운동 이후 많이 변화하였다. 사실 동성 연애자 단체나 여성단체 같은 소수 그룹의 출현과 스페인인들의 지위 상승 이후 흑인 공동체는 이제 문제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흑인문제에 대해서는 민족적 측면에서보다 인종적 측면에서 언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흑인과 백인의 관계는 관계의 부재로 특징지어진다. 백인들은 흑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고, 흑인들이 사는 구역에서는 거주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거주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번째 요소는 가정파탄과 학교의 와해, 주택의 감소로 고통받는, 중심 도시의 소수민족 거주지 현상이다. 캄패집단이 주도하는 폭력과 마약, 빈곤, 소외의 장소인 '빈민촌 *poches de misère*'은 유대인 가나 흑인가보다 더욱 비참하다.

현실적으로 유럽과 북미 사회에 인구 집중 현상의 징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제위기에서 오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프랑스 사회가 다민족주의를 도입하면서 정말로 미국적 모델에 가까이 갔는지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배타주의적 경향들은 인종차별의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적 발전과정의 산물이며, 그럼에도 프랑스는 결국 통합에 성공할 것이다.

3. 융합과 혼돈을 넘어서: 캐나다의 독창성과 몇가지 가상의 시나리오

캐나다의 이주민들에 대한 통합정책은 능동적이며 그들 본래의 문화를 존중하는 가운데 시행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의지주의적인 개방 태도가 한때 캐나다가 취했던 배타주의 정책의 어두웠던 과거를 잊어버리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과거에 속하는 이 암울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한다. 즉 캐나다 안에서 제 3의 집단들은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더욱 번창하고 있으며, 백 개 이상의 공동체가 캐나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5년 전부터 특히 도시의 사회 조직은 확연히 변모하였으며, 3천년대 초에 이르면 영국과 프랑스 출신의 캐나다인들의 비중도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질적인 집단들이 생겨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화정책의 실패에 기

인한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들은 미국에서처럼 그 사회의 지배적인 계층이 영향력을 완전히 행사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이웃나라인 미국도 아직 완전히 동화정책을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미국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양적으로 우월한 WASPS들에 의해 지배되었고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점차적으로 지배문화에 동화되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캐나다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주민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출국이 입국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캐나다는 인구 구성의 변화를 받아들임에 있어 미국처럼 자신의 규범을 강제하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의 패권주의적, 제국주의적 정책은 반(半)-캐나다적이라기보다 미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이데올로기 또는 매우 영향력있는 가치들을 강요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동질적인 인구가 없다는 것은 캐나다에 있어 진정한 동화의 부재를 설명해주기에 충분하다.

두 강대국(영국과 프랑스)의 지속적인 식민 지배는 캐나다를 이중으로 식민화시켰으며, 영국인들의 동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불어권의 영향은 캐나다 특유의 문화적 언어적 이중성을 창출해 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전체 역사의 구조화라는 그것의 역할에 있어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은 명백하다. 지금 당장은 입헌쟁이 별로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하지만, 퀘벡인들의 존재가 캐나다의 특수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그 유명한 라이벌 의식이 이민 분야에서도 이주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리고 자국민들의 출산을 저하를 보충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의 양상을 띠는 한, 이러한 이중성은 제 3 그룹의 이주민들의 정착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이 두 민족간의 관계가 바로 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자멸이나 해방이나라는 퀘벡의 분리 결과에 대해서나, 생산적이 되거나 양쪽에 괴로움만을 주게 될 그들의 공생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캐나다와 퀘벡의 분리가 연방해체의 위험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에 흡수 통합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이다.

미래의 체제가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북미의 상황 속에서 캐나다에 그 특수성을 제공해온 것이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의 공생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캐나다의 정체성을 규정짓고자 한 마르탱 쎬이무르 립셀 Martin Seymour Lipset 과 밀드레드 쉬와르츠 Mildred Schwartz의 논문을 검토해 보자.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캐나다에는 미국의 강력한 문화적, 경제적 지배에 의해 대체된 두 식민 모델의 부정적인 영향 이외에, '계기적인 사건'événement formateurs' 다시 말해 혁명이나 외부의 침입이 발생한 적이 없다. 또한 캐나다에는 메시아주의적 경향도 없으며, 그들 고유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이 그들로 하여금 보편주의 보다 자치주의에 우선권을 두게 한다는 것 등을 덧붙여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동화의 압력이 약하다고 해서, 다원 문화의 신조를 지니고 있는 캐나다에 반드시 '분열된 국가'의 위협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세 가지 서로 다른 전략에 입각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자. 첫째는 융합이다. 융광로는 미국에서조차 작동되기가 힘들었다. 캐나다에서 이미 반정도 실패한 융합정책은(모욕적인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 속에 해체 또는 국가에의 소속감을 이루는 공동체적 연대감의 상대적인 약화를 내포하고 있다. 통합의 전략은 민족의 경계선을 없애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이상들과 추상적인 가치들의 총체, 한 마디로 말해 캐나다에는 부재하는 보편주의의 이름으로 미래를 향한 방대한 규모의 정책 시행을 가정한다. 만약 미국적 신조라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캐나다적 신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미국에 개인에게 중점을 두는 통합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캐나다인들은 그 이상으로 사회적 권리와 그 보호형태의 중요성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사회를 믿는다고 할 수 있다. 민족성은 동화정책에 있어 하나의 방해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융합정책이 얻을 수 있는 표준화와 동질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정책은 캐나다에 잘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두번째 선택으로는 민족의 경계선을 유지하고 균질성을 피하기 위해 다양성을 권장하는 다원주의 체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민족주의를 배제하지 않으며, 또한 차별성에 권리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인종차별주의로 빠질 위험을 내포

할 수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원주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집착하여,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들의 특수한 기억을 증시하고, 물려 받은 전통 풍습을 보존하려는 소수민족집단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소수민족 집단화의 위험성은 명백하며 캐나다가 이러한 것들을 수용할 경우 국가의 통일을 확립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우리가 위험한 혼돈이라고 부르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완전하게 실행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세번째 해결책으로서 다원적 통합 방식을 살펴보자. 이 방식은 다원적 사회체제 내에 정체성과 동화를 동시에 견지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교류와 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캐나다의 통합방식은 본래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각 집단들이 그 수용사회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 외국인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질문화의 수용이 그들의 민족문화를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변화를 야기시킨다. 문화들 간의 풍부한 교류와 상대방 문화의 수용을 통해 획득되는 새로운 경험은 각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실제로 영어의 개념이 '영어권'의 개념으로, 불어의 개념이 '불어권'의 개념으로 의미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퀘벡인 혹은 캐나다인이라는 말도 과거와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 상호 문화 교류는 그 속에 개혁과 재활성화의 가능성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융화 trans-fusion' 또는 '융해infusion'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용하는 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혈통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일 줄 알고, 또 새롭게 자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문제이다. 혼혈은 분산이나 파괴, 오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을 의미한다. 캐나다 사회의 단 한가지 어려움은 모자이크의 이미지가 지금까지 개별적 차별성들 위에 놓여진 동질성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는 것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창조될 캐나다에의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양성을 넘어서서 통일적인 요소들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본국과 외부로부터 온 집단들과의 대면이 양 체제 간의 충돌이 되거

나 그러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그 이후로 복합적이 된 기존의 지배사회 내에서 특히 도시의 형태로 이러한 대면은 잘 진행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도시들이 보편화된 혼혈의 이상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는 세계의 대문명들이 생존을 위해 혼혈의 방법을 공존의 양식으로 취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한 선택은 과거의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캐나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해줄만한 영광스런 과거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타까와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거나 반인륜적인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더 나은' 역사를 가졌다고 자랑할 수도 없다. 향수 어린 눈으로 과거에 의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정착민' 또는 '최초민족'과 같은 표현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 치명적인 복고주의로 흘러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역사를 부정하지도 망각하지도 않으면서, 받아들인 전통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역사로 바꾸어야 한다.

결론을 대신해서 한가지 덧붙인다면, 캐나다는 현재 변화에 직면하여 자신을 재검토하는 불안정한 시기이다. 이제까지 캐나다는 여러가지 위기들을 잘 극복해왔다. 영토의 광활함에 비해 인구가 부족하다던가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노동력이 부족하다던가 이웃나라 미국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당면과제는 캐나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혼합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융합과 혼돈을 넘어, 캐나다 사회를 구성하거나 해체하는 수백개의 집단들이 캐나다를 재구축할 것을 감히 기대해보자. 다원문화의 이데올로기는 보다 넓은 자유와 평등을 건 흥미로운 도박에 의거하고 있으며,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어쨌든 정착민들 이외의 새로운 집단들이 양적으로 우세하게 증가하는 현실은 불가피하게 캐나다의 정체성의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모자이크가 진정한 캐나다의 모델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하위문화들의 기계적 집산이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캐나다에 있어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과제는 캐나다인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역사적, 이념적, 혹은 신화적 표상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수진 역〉